

## 석독구결의 번역사적 의의에 대한 시론(試論)\*

장 경 준  
(고려대)

### 1. 머리말

석독구결은 한문으로 된 원문에다 토(吐)를 달아 독자로 하여금 그 원문을 한국어로 풀어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표기법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 석독구결의 표기법을 이해하고 있는 독자는 이것이 달린 한문 텍스트를 한국어로 읽을 수 있게 된다.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석독구결은 한문, 즉 중국어 텍스트를 한국어 텍스트로 변환시켜 주는 일종의 번역 양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석독구결에 대한 연구는, 이것이 기입된 자료가 대량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국어학계 내에서도 그 연구 성과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한국에서의 번역의 역사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석독구결은 마땅히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이

---

\* 이 글은 2010년 11월 민족어문학회에서 구두로 발표한 ‘고려시대 불경 번역의 두 가지 양식’의 원고를 보완한 것이다.

지만 아직 우리 학계의 역량이 그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한국 번역사를 충실히 기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석독구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진 석독구결에 대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 2. 석독구결의 개념과 성격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된 1440년대 이전의 한국어는 한자(漢字)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이것을 차자표기(借字表記)라 하는데, 차자표기로 쓰인 한자는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음(音)이나 훈(訓)의 일부분만 한국어의 표기에 이용한다. 예를 들어 ‘흐고’는 ‘爲古’ 또는 ‘ㄴㅇ’라고<sup>1)</sup> 적었는데, 이때 ‘爲’(음: ‘위’, 훈: ‘흐-’)와 ‘古’(음: ‘고’, 훈: ‘네’)는 각각 훈인 ‘흐-’와 음인 ‘고’만을 표기에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한자와 차자표기로 쓰인 한자가 섞여 있는 자료에서는 먼저 어떤 한자가 차자표기에 쓰였는지를 가려내고, 다음으로 그 한자의 음이나 훈 가운데 어느 것을 이용하여 표기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차자표기의 유형 가운데 문장 차원의 것은 크게 이두(吏讀), 향찰(鄕札), 구결(口訣)로 나뉜다. 이두의 경우 어휘 형태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는 차자표기로 적었으며 실용문서에 많이 쓰였다. 향찰은 어휘 형태와 문법 형태 모두 차자표기로 적었으며 시가의 표기에 사용된 작품만 일부 남아 있다. 그리고 구결은 기존의 한문 문장 사이사이에 토(吐)를 달아 그 한문이 어떻게 풀이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종교 서적에 많이 기입되었는데 15세기 이전에는 불경(佛經)에 현토한 자료만 남아 있다.

구결은 13, 14세기의 원 간섭기를 전후하여 매우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13세기 이전의 구결은 이른바 석독구결(釋讀口訣)로서 한문으로 쓰여진 불경을 당시의 한국어로 풀어 읽을 수 있도록 토(吐)를 달았다. 석독구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한자의 자형을 취한 구결자(口訣字)로 토(吐)를 달아 자

1) ‘ㄴㅇ’는 ‘爲古’에서 자획의 일부분만 취한 것이다. 이러한 생획자(省劃字)는 주로 구결에서 사용되었고, 이두나 향찰에서는 대체로 한자의 자형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토석독구결(字吐釋讀口訣)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점, 선 모양의 구결점(口訣點)으로 토(吐)를 달아 점토석독구결(點吐釋讀口訣)이라 부른다.<sup>2)</sup> 석독구결은 조선시대 이래 흔히 사용해 오던 음독구결(音讀口訣)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한국어의 문법 형태의 쓰임을 자세히 보여주고 어순도 거의 완전하게 표시할 수 있었다.

석독구결 중에서 특히 점토석독구결의 문자 체계는 이것이 처음 발견된 2000년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문자론, 표기법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석독구결은 일본에서 행해져 온 한문 훈독(訓讀)과

2) ‘자토석독구결’은 ‘자토구결의 모습을 갖춘 석독구결’을 가리키고 ‘점토석독구결’은 ‘점토구결의 모습을 갖춘 석독구결’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아직 학자들 사이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장황하지만 그동안 발표된 견해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일반적인 문자가 아닌 점, 선으로 토를 단 구결은 이전에 연구된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도 새로 만들어 써야 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자리에 있었던 남풍현 교수는 ‘점토구결(點吐口訣)’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때 ‘점토(點吐)’는 일본 훈점(訓點)의 ‘점(點)’과 한국 구결의 ‘토(吐)’를 합성한 것으로서 이 구결이 일본의 훈점에서 사용되는 점, 선과 유사한 것에서 착안한 용어이다(남풍현2000: 5-45). 그리고 이승재(2000: 135-152)에서는 “각필로 적힌 점과 선을 부호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이 부호를 이용하여 한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풀어 읽은 것을 부호구결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였고, 정재영(2001: 43)에서도 “각필이나 목서로 점이나 선, 점이나 선을 합한 부호, 또는 기타의 다른 부호들로 현토한 것들을 부호구결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경준(2001: 114)은 “한문 원문에 토를 달 때 점과 선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문자를 이용하는가를 기준으로 구결 자료를 분류, 지칭하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점토구결(點吐口訣)’, ‘자토구결(字吐口訣)’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고 하여 ‘구결점(口訣點)-점토(點吐)’와 ‘구결자(口訣字)-자토(字吐)’를 대칭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김영옥(2003: 151)은 “각필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모든 점이나 선들이 토(吐) 구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묶어서 ‘점토구결’이라고 부르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냥 점토(點吐) 혹은 선토(線吐)라고 하더라도 구결의 특징이나 기능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 듯하다”고 하였으며, 이승재(2004: 293)에서는 “일본의 훈점(訓點), 오코토점(點), 부호(符號)에 대하여 각각 부점(符點), 점토(點吐), 부호(符號)가 대응하게 된다. 새로 제안한 부점(符點)은 점토와 부호를 포괄하는 개념의 용어”라고 하여 ‘부점구결’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안된 용어 가운데 현재 비교적 널리 쓰이고 있는 ‘점토구결(點吐口訣)’을 사용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화 현상이라는 점에서 문화사, 교류사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며, 한문 텍스트를 한국어 텍스트로 변환하기 위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번역사의 연구 대상이 된다. 해독이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불교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물론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석독구결 자료는 자토구결 5종과 점토구결 14종이 있다.<sup>3)</sup>

### 3. 석독구결에서 토를 다는 방식

구결 자료는 한문으로 된 문장을 이해한 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토를 달아놓은 것이다.<sup>4)</sup> 따라서 한문에 토를 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현토자의 취향에 맞는, 혹은 배워 알고 있는 방식으로 토를 달게 되는데 이 때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구결의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문 문장 중에 ‘不忘念初地’라는 구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앞뒤의 문맥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 구절의 해석 가능성은 우선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세 경우를 현대 한국어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한문의 구성 성분으로 쓰인 한자를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 괄호 안에 배열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1) 初地를 생각하기를 잊지 않다 (初地, 念, 忘, 不)
- (2) 잊지 않고 初地를 생각하다 (忘, 不, 初地, 念)
- (3) 初地를 잊지도 생각하지도 않다 (初地, 忘, 念, 不)

만약 조선시대에 누군가 이 구절에다 토를 달았다면 (1), (2), (3) 중 어떤 해석을 취하더라도 모두 원문 ‘不忘念初地’에다 토 ‘爲多’를 달아 ‘불망념초지 허다’라고 읽었을 것이다. 토만 보서는 현토자가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토를 달아 읽을 때는 한문의 요소를

- 
- 3) 모두 고려시대 자료이다. 일본에 있는 『화엄문의요결문답(華嚴文義要決問答)』 등의 사본 중에는 통일신라(계통)의 점토구결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나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4) 토를 다는 것을 ‘현토(懸吐)’한다고 하고, 토를 다는 사람을 ‘현토자(懸吐者)’라고 한다.

모두 음독(音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구결을 ‘음독구결’이라 부른다.<sup>5)</sup>

그런데 13세기 이전의 고려시대 불가(佛家)에서는 토를 다는 방식이 달랐다. 여기서는 토를 단 사람이 ‘不忘念初地’라는 구결에 대해 (1), (2), (3) 중 어떤 해석을 취하였는지, 그리고 그 해석은 당시의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읽혔는지를 토를 통해 표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한문 문장을 한국어의 어휘와 어순으로 풀어 읽는 구결’이라는 뜻에서 ‘석독구결(釋讀口訣)’이라 부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 제시한 ‘不忘念初地’에 대한 세 가지 해석 가능성, 즉 (1), (2), (3)으로 해석한 결과를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의 표기법으로 옮겨 보면 아래의 (4), (5), (6)처럼 된다. 그리고 이것의 독법(讀法)을 다시 훈민정음으로 고쳐 적으면 다음의 (7), (8), (9)처럼 적을 수 있다.

(4) 初地乙 念ノ尸入 忘尸 不冬々

(5) 忘尸 不 々 初地 念々

(6) 初地乙 忘々 念々 不冬々

(7) 初地를 念홀들 니즐 안돌ㅎ다

(8) 니즐 안돌ㅎ아 初地를 念ㅎ다

(9) 初地를 닛져 念ㅎ져홀 안돌ㅎ다

여기서 (1), (2), (3)의 괄호 안에 표시한 한자의 배열과 (4), (5), (6)에서 구결자를 제외한 한자의 배열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기 바란다. (4), (5), (6)은 누군가 ‘不忘念初地’라는 한문 문장에 어떤 표시가 있는 것을 보고 한문의 구성 성분을 풀어헤쳐 한국어의 어순으로 재배열한 것이다. 즉 석독구결의 독자들은 ‘不忘念初地’에 달려 있는 토를 보고 (4), (5), (6)과 같이 풀어 읽었고, 그것의 구체적인 독음을 추정한 것이 (7), (8), (9)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는 어떻게 토를 달았길래 ‘不忘念初地’를 ‘불망념초지’라 음독하지 않고 (7), (8), (9)처럼 당시의 한국어로 석독했던 것일까?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재구해 본 방안은 다음과 같다.<sup>6)</sup>

5) ‘음독구결(音讀口訣)’에서는 한문 원문의 어순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읽기 때문에 ‘순독구결(順讀口訣)’이라고도 한다. ‘음독구결’, ‘순독구결’은 각각 ‘석독구결(釋讀口訣)’, ‘역독구결(逆讀口訣)’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6) 석독구결은 크게 <유가사지론>과 <화엄경>의 두 가지 계통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먼저 (1)의 해석을 취했을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토를 달 수 있다.



(자토구결)



(점토구결1: 점토)



(점토구결2: 점토+부호)

(어순) 初地①, 念②, 忘③, 不④      (구결) 初地 念 尸 乙 忘尸 不 ㄴ  
 (해석) 初地를 생각하기를 잊지 않다      (독음) 初地를 念홀들 니줄 안들ㅎ다

자토구결에서는 먼저 어순상 첫 번째로 읽을 ‘初地’의 ‘地’에 우측토로 ‘乙 [을]’을 기입하고 역독점을 찍는다. 그리고 나서 ‘念, 忘, 不’에다가 차례대로 각각 ‘尸入乙[홀들], 尸[리], 冬ㄴ[들ㅎ다]’를 좌측토로 달되 ‘尸入’과 ‘尸’에는 역독점을 찍어서 읽는 순서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며 읽는 것임을 표시한다.

반면에 점토구결에서는 자토구결의 ‘乙, 尸入乙, , 冬ㄴ’에 각각 대응하는 (①, ②, ③, ④로 표시한) 점토를 ‘地’자에 모두 기입한다. 따라서 점토

는 그 가운데 <유가사지론> 계통의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하였다.

만을 가지고는 문장 성분의 구분과 어순의 파악을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판단은 독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 그래서 현토자는 독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수의적으로 ‘念, 忘, 不’에는 각각 ‘역독선’이라 부르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휘어지는 긴 곡선을 긋고, ‘初地’에는 ‘합부’라고 부르는 두 글자를 이어주는 긴 수직선을 그을 수 있다. 역독선은 그것이 기입된 글자가 어순상 나중에 읽힘을 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토구결의 역독점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합부는 그것이 이어주는 글자들이 한 단위의 문장 성분임을 표시해 주는 부호이다.

다음으로 (2)의 해석을 취한 경우에 가능한 현토 양상을 보이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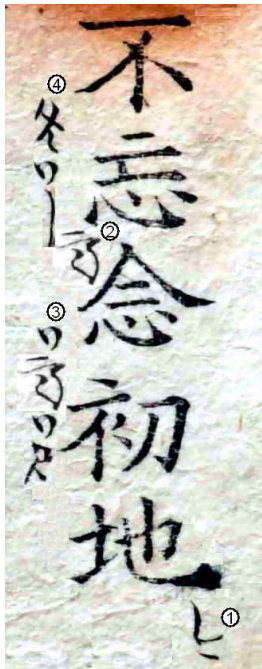
(어순) 忘①, 不②, 初地③, 念④      (구결) 忘尸 不冬ㄴ; 初地 念ㄴ |  
 (해석) 잊지 않고 初地를 생각하다      (독음) 니즐 안덜 호아 初地를 念호다

자토구결에서는 어순상 가장 먼저 읽을 ‘忘’에 우측토로 ‘ [ㄹ]’과 역독점

을 기입하고, 그 다음에 입을 ‘不’에 좌측토로 ‘ㄴ’ [들하아]를 단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입을 ‘初地’의 ‘地’에다 우측토로 ‘ㄷ[을]’과 역독점을 기입한 다음 마지막으로 ‘念’에 좌측토로 ‘ㄴ’ [하다]를 단다.

그리고 점토구결에서는 자토 ‘不’과 ‘ㄴ’에 대응하는 (①, ②로 표시한) 점토를 ‘忘’에 함께 달고, 자토 ‘ㄷ’과 ‘ㄴ’에 대응하는 (③, ④로 표시한) 점토를 ‘地’에 같이 기입한다. 어느 한자에 점토가 달려있는지를 통해 ‘不忘’과 ‘念初地’가 독자적인 통사 단위임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점토만 가지고는 각각의 단위 내부를 구성하는 문장 성분과 어순의 파악은 역시 독자 스스로 해야 한다. 그래서 현토자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수의적으로 역독선과 합부를 그을 수 있다. 즉, ‘不’과 ‘念’에 역독선을 긋고 ‘初地’에 합부를 그음으로써 ‘忘’에 달린 점토 ②는 ‘不’에 붙여서 읽어야 하고 ‘地’에 달린 점토 ④는 ‘念’에 붙여 읽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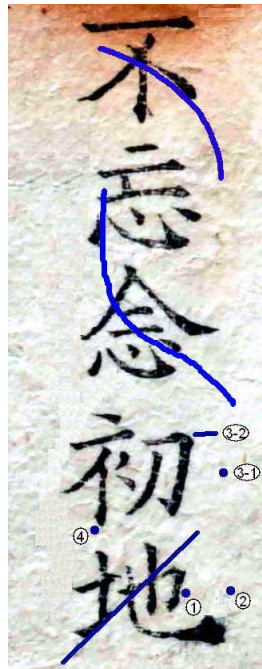
다음으로 (3)과 같이 해석했을 때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토를 달 수 있다.



(자토구결)



(점토구결1: 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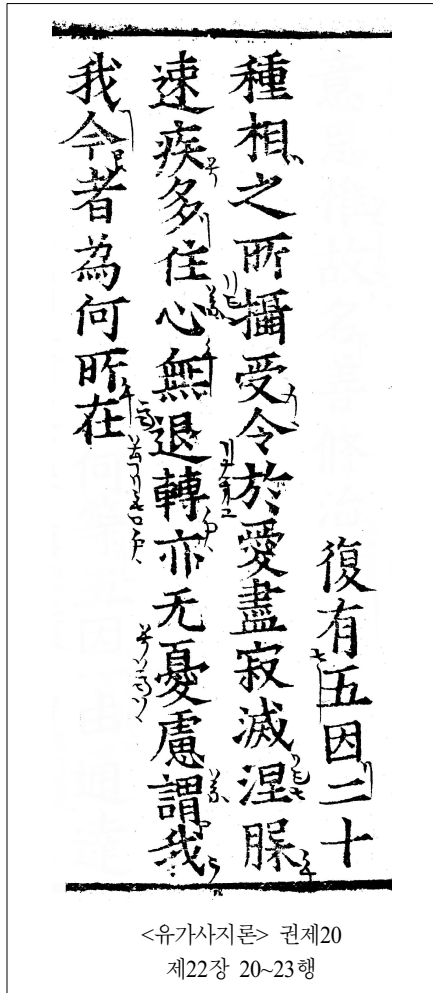


(점토구결2: 점토+부호)



#### 4. 석독구결에 의한 번역의 구체적인 사례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석독구결은 독자가 토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한문 원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을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번역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석독구결의 실제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고려 시대 불경 번역의 일단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4.1. 자토석독구결의 경우

자토석독구결 자료 가운데 남풍현 교수가 소장한 <瑜伽師地論> 권제20을 보면 앞의 그림과 같이 현토된 부분이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분의 (1)한문 원문, (2)현대역1,<sup>8)</sup> (3)현대역2,<sup>9)</sup> (4)토가 지시한 대로 풀어 놓은 구결문, (5)구결문에 의거한 번역을 나란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復有五因二十種相之所攝受 令於愛盡寂滅涅槃速疾多住心無退轉 亦無憂慮謂我我今者爲何所在 (원문)
- (2) 또, 다섯 가지 원인은 스무가지 모양에 포섭이 되어, 욕망이 다한 고요히 스러진 열반에서 빠르게 많이 머물러서 하여 마음에 물러남이 없고 근심 걱정도 없으면서 「나와 나는 지금 있는 데가 어디일까?」라고 하게 한다. (현대역1)
- (3) 다시 5인(因)이 있어서 20가지의 상(相)을 섭수(攝受)하게 된다. 애(愛)가 다한 적멸열반(寂滅涅槃)에 빨리[速疾] 많이 머물러서 마음으로 퇴전(退轉)함도 없고, 또한 우려(憂慮)함도 없어서 '우리들은 지금 어떤 곳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다. (현대역2)
- (4) 復 五因 二十種 相 攝受 所 有 於 愛 盡 寂 滅 涅 槃 速 疾 多 住 心 無 亦 憂 慮 謂 我 我 今 者 爲 何 所 在 令 亦 無 亦 憂 慮 謂 我 我 今 者 爲 何 所 在 (구결문)<sup>10)</sup>
- (5) 또 五인이 20가지 相으로 攝受한 바인 것이 있다. 愛盡 寂滅한 涅槃에 빨리 많이 머물러서 마음에 물러남이 없고, 또한 憂慮하여서 이르기를 ‘我的 我是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라고 함이 없게 하(고 하)는 것이다. (구결번역)

(2), (3), (5)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동일한 원문에 대한 현대의 두 가지 번역과 고려시대 석독구결에 의한 번역이 여러 가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 중 내용 파악에 중요한 부분이면서 현대역과 석독구결의 번역이 서로 다른 두 경

8) ‘현대역1’은 동국역경원에서 책으로 간행한 ‘한글대장경’(1995)에 실린 것이다(510쪽, 역자 미상).  
 9) ‘현대역2’는 최근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이다(701~702쪽, 역자 강명희).  
 10) ‘{ }’ 안에 표시된 한자는 구결문을 읽을 때 읽지 않게 되는 부독자(不讀者)임을 표시한다.

우만 살펴보자.

먼저 ‘亦无憂慮謂我我今者爲何所在’에서 서술어 ‘无’의 주어와 현대역과 석독구결이 달리 파악하였다. 두 현대역에서는 ‘憂慮’가 ‘无’의 주어라고 보아 ‘근심 걱정도 없으면서 ~라고 하다’ 또는 ‘우려(憂慮)함도 없어서 ~라고 하다’로 번역한 반면 석독구결에서는 ‘憂慮謂我我今者爲何所在’ 전체를 ‘无’의 주어로 보아 ‘우려하여서 이르기를 ~라고 함이 없다’로 번역한 것이다.

이 부분은 한문 문장의 문법만을 따진다면 현대역과 석독구결의 번역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앞뒤의 문맥을 고려한다면 석독구결의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곳은 ‘五因’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이 기술될 부분이어서 ‘心無退轉’과 ‘亦无憂慮’는 그에 부합하지만 ‘謂我我今者爲何所在’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므로 ‘五因’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憂慮’의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독구결의 현토자가 파악한 내용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謂我我今者爲何所在’에서 ‘我我’의 번역을 보자. 현대역1에서는 ‘나와 나’로 번역하였고 현대역2에서는 ‘우리들’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모두 ‘我我’를 ‘我’의 복수형으로 파악한 것인데, 문맥상 1인칭의 복수 표현이 올 자리인지 의심이 되기도 하거니와 만약 ‘我’의 복수 표현이라면 왜 ‘我等’이라고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 든다.

그런데 석독구결에서는 ‘我’와 ‘我’의 사이에 ‘의’로 읽히는 ‘ㄴ’을 토로 달아놓았다. 이것은 ‘我我’가 단순한 ‘我’의 복수가 아니고 앞의 ‘我’가 뒤의 ‘我’를 꾸미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음을 뜻한다. 필자는 아직 이 문맥에서 사용된 ‘我’의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여<sup>11)</sup> 석독구결의 번역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 ‘我我’를 석독구결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현대역에서처럼 복수형으로 파악할 때 제기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점에서 이 텍스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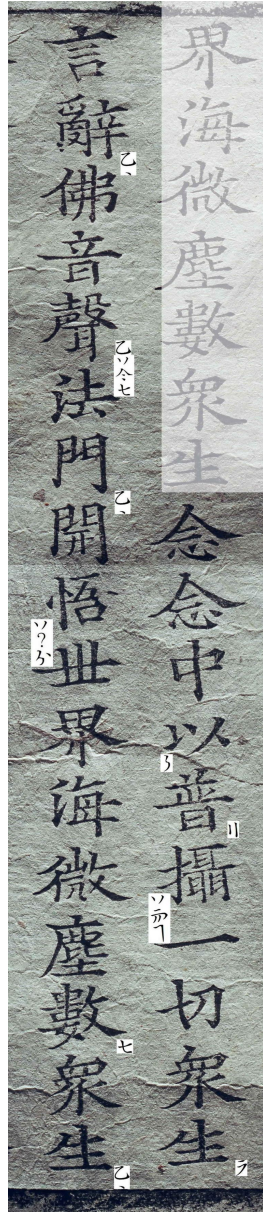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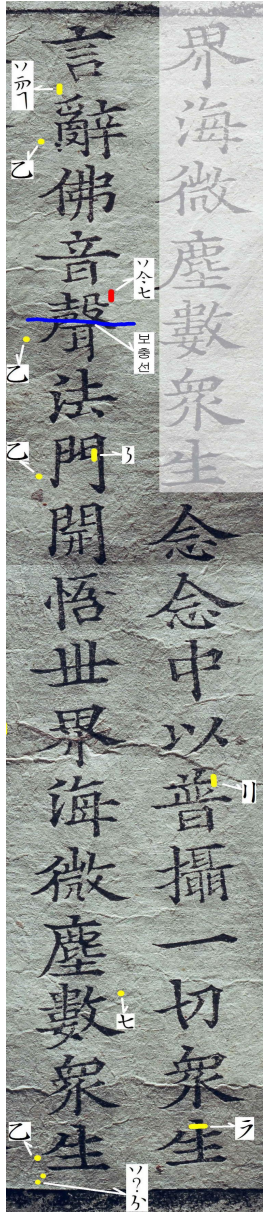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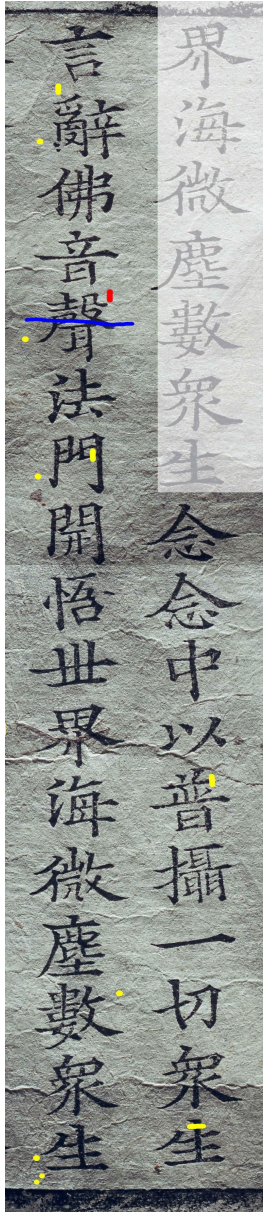
11) 앞의 ‘我’는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나’이고 뒤의 ‘我’는 ‘나’라고 하는 관념 즉 ‘我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 4.2. 점토석독구결의 경우

이번에는 고려시대의 점토석독구결 자료 가운데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80권본[周本] <華嚴經> 권제6에 기입된 점토구결의 일부를 살펴보기로 하자.<sup>12)</sup>

점토구결에서는 대체로 각필(角筆)이라는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먹물을 묻히지 않고 기록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명을 비춘 상태에서 자세히 관찰해야만 비로소 점토나 부호가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화엄경>의 점토구결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사진을 제시하더라도 비전문가는 거의 알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본 사진에서 먼저 각필로 기입된 점토와 부호에 눈에 잘 띄는 색깔을 두껍게 입히고(a), 각각의 점토와 부호의 추정 독법과 기능을 추가로 표시한 다음(b), 자토구결이라면 어떻게 토를 달았을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나란히 제시하였다(c).

12) 이 글의 2장에서 점토석독구결의 현토 방식을 소개할 때는 <유가사지론> 계통의 점토구결을 제시하였는데, <화엄경>에서는 점토를 읽는 방법이나 부호의 사용이 <유가사지론>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a) 점토구결 (b) 점토와 부호의 독법과 기능 (c) 자토구결로 변환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80권본 <화엄경> 권제6, 제11장 22~23행)

아래에 해당 부분의 (1)한문 원문, (2)현대역,<sup>13)</sup> (3)한문에 달린 점토를 대응되는 자토로 표시한 것, (4)토가 지시한 대로 풀어 놓은 구결문, (5)구결문에 의한 번역을 순서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念念中 以普攝一切衆生言辭佛音聲法門 開悟世界海微塵數衆生 (원문)
- (2) 잠깐잠깐마다 모든 중생들의 말과 부처님의 음성을 두루 거두어 들이는 법문으로써 세계해의 티끌 수 중생들을 깨우치었다. (현대역)
- (3) 念念中以普[ ㄷ ]攝一切衆生[ > ]言辭[ 乙, ㄹ 1 ]佛音聲[ 乙, ㅅ 7 ]法門[ 乙, 3 ]開悟世界海微塵數[ ]衆生[ 乙, x 5 ] (토의 표시)
- (4) 念念中 普 ㄷ 一切 衆生 > 言辭 乙 攝( ~ ) 1 佛 音聲 ( ~ ) 7 法門 以 3 世界海 微塵數 乙 衆生 乙 開悟 x (구결문)
- (5) 念念 中에 널리 일체 중생의 언사를 섭수하신 부처의 음성을 하는 법문을 써서 세계해 미진수의 중생을 깨우치며 (구결번역)

(2)와 (5)를 비교해 보면 ‘攝一切衆生言辭佛音聲法門’에서 동사로 쓰인 ‘攝’의 목적어를 현대역과 석독구결이 서로 달리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역에서는 ‘一切衆生言辭’와 ‘佛音聲’을 모두 ‘攝’의 목적어로 보아 ‘모든 중생들의 말과 부처님의 음성을 거두어 들이는 법문’으로 번역한 반면 석독구결에서는 ‘一切衆生言辭’만 ‘攝’의 목적어로 보아 ‘일체 중생의 언사를 섭수하신 부처의 음성을 하는 법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면 석독구결의 번역이 더 타당하다. 현대역과 같이 ‘일체 중생의 말과 부처의 음성’을 모두 섭수하는 것이 ‘법문(法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석독구결에서처럼 ‘일체 중생의 말’을 섭수하는 ‘부처의 음성’이 곧 중생을 깨우치는 ‘법문(法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어진 한문 문장을 보면 석독구결처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佛音聲’과 ‘法門’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攝一切衆生言辭’가

13) ‘현대역’은 동국역경원에서 책으로 간행한 ‘한글대장경’에 실린 것으로서 현재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156쪽, 역자 이운허).

‘佛音聲’을 꾸며주고 그것이 다시 ‘法門’을 꾸며주는 계층구조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攝一切衆生言辭佛音聲’이 한 덩어리로 ‘法門’을 꾸며주는 것으로 보아 ‘一切衆生言辭佛音聲을 攝하는 法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역의 번역이 잘못되었다기보다 번역의 저본이 된 한문 원문에 더 큰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점토구결의 현토자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聲’자에 ‘보충선’을 그었다. 보충선은 한문 원문에 어떤 동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토를 달았음을 표시하는 부호이다.<sup>14)</sup> 이 사례의 경우 만약 원문에 동사 ‘發’이 추가되어 ‘以發普攝一切衆生言辭佛音聲法門’으로 되어 있었다면, 구결문은 ‘普 11 一切 衆生 3 言辭 乙 攝 乙 佛 音聲 乙 發 乙 法門 乙 以 3’가 되도록 토를 달았을 텐데, 원문에 그런 동사가 없으니 있다고 가정하고 이 구결을 이해하라는 뜻이다. 만약에 현대역의 번역자가 이 문장을 석독구결의 현토자처럼 이해했다면 어떻게 번역했을까? 아마도 ‘모든 중생들의 말을 널리 거두어 들이는 부처님의 음성을 내는 법문으로써’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랬다면 더 훌륭한 번역이 되었으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상에서 잠깐 소개한 바와 같이, 석독구결 자료를 해독해 보면 고려시대 스님들의 (석독구결을 통한) 번역이 매우 명료하고 정교했으며 때로는 현대의 한글대장경 번역보다 더 훌륭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 5. 석독구결의 번역사적 의의에 대한 인식

‘번역’의 정의를 “어떤 한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ST)를 필요에 따라 다른 언어(TT)로 옮기는 일”(유명우2002: 12)이라 한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는 “중국어로 쓰여진 한문 텍스트를 필요에 따라 한국어로 옮기는 일”의 결과물이므로 ‘번역’된 자료이고, 따라서 ‘번역사’의 기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석독구결 자료의 작성 연대는 점토구결의 경우 대략 10~12세기, 자토구결은 대체로 12~13세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한국 번역사

14) ‘보충선’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박진호(2004)를 참조할 수 있다.

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로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10세기 이전에 기록된 자료 가운데 외국어로 된 텍스트를 한국어로 옮긴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번역사를 논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필자가 과문한 탓이 크겠으나, 석독구결을 비롯한 차자표기의 실상을 충분히 파악한 바탕 위에 논의를 전개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보인다.<sup>15)</sup>

- (1)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번역은 『삼강행실도』(세종29, 1447)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조진기2003: 17)
- (2) “한글 창제 이전에는 중국의 고전을 번역할 문자가 없었기에 아예 철저한 한문교육을 통해서 중국의 고전을 원문으로 읽었다 … 이두로 표기된 문헌 가운데 조선시대 1395년(태조 4년)에 나온 『대명률직해』가 현존하는 최초의 번역서로 알려져 있다.” (김지원2007: 120-121)
- (3)
  - ㄱ. “구전(口傳)해 오던 한국어 시가(詩歌)와 전설(傳說) 등을 한문으로 번역하였으며 … 삼국유사에 수록된 처용가(處容歌)나 월명사(月明師)의 도솔가(兜率歌) 등의 가사와 … 이는 번역의 관점에서 구어체 향가(ST)를 한자향가(TT)로 옮겨 기록에 남겼으니 어김없는 번역일 뿐만 아니라 한자를 창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 (유명우2002: 22-26)
  - ㄴ. “이러한 차자법은 문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텍스트를 번역한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다. 왜냐하면 불경이나 중국의 문학이 이 차자법으로 번역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자법은 오늘날 한글의 로마자표기법처럼 일종의 특수하게 고안된 전사법(Transliteration)이며 음역법(Transliteration)의 범주에서 파악해야 할 것 같다. … 그러나 향가의 번역은 단순한 전사법이나 음역으로만 보기에겐 문제가 있다.” (유명우2002: 28-29)
  - ㄷ. “이두가 번역에 처음 쓰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는 … 명나라의 법률을 이두로 번역한 <대명률직해>를 두고 말한다. … 그러나 향가의 경우도 엄연히 이두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어로 노래한 내용을 이두의 한 양식인 향찰로 받아 적은 것이 향가라 할 수 있다.” (유명우2004: 71~72)

15) 제시한 인용문에서 밑줄은 필자가 임의로 그은 것이다.

## (4)

- ㄱ. “한국 번역사 논의에 처음으로 불을 지핀 유명우(2002/ 2004)에서 제안한 ‘한자 차자법 번역 시대, 언해 번역 시대, 한글 번역 시대’라는 시대 구분이 있지만, 구분의 기준도 혼란스럽고 ‘차자 표기’가 번역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김정우2005: 158, 각주47)
- ㄴ. “유명우(2002)는 … 한자 차자표기(이두, 향찰, 구결)를 번역 자료로 간주하는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만일 한자 차자표기 자료를 번역으로 간주한다면, 오늘날 자신의 언어와 전혀 무관한 언어의 문자를 빌려서 자국의 언어를 표기하는 터키, 몽골, 이란 사람들도 매일같이 자신의 언어(구어)를 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하고 있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 향찰을 비롯한 차자표기를 번역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는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정우 2008: 33)
- ㄷ. “석독구결문은 일정한 독법에 따라 읽으면 그 자체가 완전한 한국어 문장이 되므로 우리말 번역 자료로 손색이 없다.” (김정우2005: 155)
- ㄹ. “앞서 언급한 대로 일정한 독법에 따라 읽을 때 완전한 한국어 문장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석독구결문은 번역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그런데 관련 자료를 깊이 천착해 보면, 사정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안병희(1976: 153-161)에 따르면, 훈독과 번역은 읽는 대상이 전혀 달라서, 전자는 한문 원문을 읽는 것이고 후자는 번역문을 읽는 것이다. … 본고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좇아 석독(=훈독)구결 용법을 번역의 직전 단계, 곧 의사번역(擬似翻譯, pseudo translation)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김정우2008: 36-37)

## (5)

- ㄱ. “舊譯仁王經은 … 漢文을 翻譯하여 읽는 方式이다. 이것을 音讀과 對立시켜 訓讀이라 부르기로 한다.” (안병희1976: 153)
- ㄴ. “이들 諺解書의 諺解는, 中庸吐釋의 釋을 포함하여 모두 漢文의 訓讀인 것이다. … 지금까지 우리는 漢文의 訓讀이란 곧 翻譯이라는 說明을 하였다. 그러므로 訓讀의 歷史는 곧 翻譯의 歷史라 할 수 있다.” (안병희1976: 154)
- ㄷ. “漢文學習에서 音讀과 訓讀이 있었다 하더라도 翻譯이 곧 訓讀이라는 소박한 등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訓讀이 원문을 翻譯하여 읽는 독법이긴 하나 翻譯文을 읽으면 곧 訓讀이 되는 것은 아니다. 訓讀과 翻譯의 차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舊譯仁王經을 읽으면 結果에 있어서 吏讀나 한글의 翻譯文을 읽은 것과 꼭같다. 그러나 읽는 對象

은 전혀 다르다. 舊譯仁王經은 비록 墨書의 도움을 받지만 원전의 漢文을 읽은 것이고, 후자는 翻譯文을 읽는 것이다. 여기 訓讀과 翻譯의 차이가 있다. … 諺解書의 諺解部分을 읽었다면, 단순한 翻譯은 되지만, 訓讀은 결코 안 된다.” (안병희1976: 156)

위의 (1), (2), (3)에서는 일종의 번역 양식으로서의 석독구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며, 특히 (3)에서는 향찰 표기를 번역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3)의 오류는 (4)에서 비판되었지만, (4)에서도 ‘표기법’과 ‘번역’의 개념을 혼동하여 ‘차자표기는 번역이 될 수 없다’는 오류에 빠졌다. 또한 (4)에서는 석독구결을 ‘우리말 번역자료로서 손색이 없다’고 하면서도 (5)에서 ‘훈독’과 ‘번역’을 구분한 것을 따라 석독구결을 온전한 번역이 아닌 ‘의사번역’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4)에서 석독구결을 ‘의사번역’이라 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5)에서는 기본적으로 ‘훈독’을 ‘번역’과 같은 개념, 즉 ‘한문 텍스트를 한국어 텍스트로 바꾸는 것’으로 보되 단지 ‘읽는 행위의 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둘을 구별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5)의 동일한 텍스트 안에서 한편으로는 ‘훈독의 역사는 곧 번역의 역사’이며 ‘언해서의 언해도 모두 한문의 훈독’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훈독과 번역은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런데 (4)는 (5)의 논의에서 (석독구결이 번역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와는 무관한) 일부분만 취사선택하고, 또 그것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석독구결을 ‘번역’이 아닌 ‘의사번역’이라는 모호한 범주 속에 가두어 놓고 말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번역사를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석독구결의 성격과 실상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논의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석독구결의 연구가 아직 초창기여서 이 분야의 전문 연구자조차 이 자료에 대해 충분히 섭렵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석독구결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것의 번역사적 의의가 본격적으로 탐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글을 통해 번역학 연구자들의 주의를 환기되었다면 그것으로 필자의 소임은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고정의 (2004) 「口訣 研究의 現況과 課題」, 『口訣研究』 12: 5-46.
- 김영옥 (2001)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구결연구』 7: 57-77.
- 김영옥 (2003) 「주본 화엄경 권36의 구결」, 『한국 각필 부호구결 자료와 일본 훈점 자료 연구- 화엄경 자료를 중심으로-』, 133-154, 태학사.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사 논의의 전제」, 『우리말연구』 16: 139-161.
- 김정우 (2008)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 『번역학 연구』 9(1): 29-69.
- 김정우 (2009) 「조선 시대 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 『번역학 연구』 19(1): 34-63.
- 김지원 (2007) 「전망을 위한 한국 번역사 재조명」, 『동서비교문학저널』 17: 117-141.
- 남권희 (2002)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 남성우·정재영 (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195-252.
- 남풍현 (1998) 「瑜伽師地論(卷20)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253-336.
- 남풍현 (2000) 「고려시대의 점토구결에 대하여」, 『서지학보』 24: 5-45.
- 남풍현 (2006) 「한국의 고대구결자료와 그 변천에 대하여」,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임용기·홍운표 편), 615-637, 태학사.
- 남풍현 (2008) 「구결학회 20년의 회고와 전망」, 『구결연구』 21: 5-25.
- 묘주(스님) (2003) 「한역경전 번역의 개선 방향」, 『전자불전논문집』 5: 1-25.
- 박진호 (2003) 「주본 『화엄경』 권제36 점토구결의 해독-자토구결과의 대응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1: 129-148.
- 박진호 (2004) 「주본 『화엄경』 권제6의 점토 중복 표기와 부호」, 『구결연구』 13: 129-148.
- 박진호 (2006) 「진본 <화엄경> 권제20의 점토 해독」, 『구결연구』 16: 173-208.
- 박진호 (2008) 「구결 자료 해독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 44: 339-348.
- 서민욱 (2005) 「『유가사지론』 권5·8의 점토구결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심재기·이승재 (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29-111.
- 안대현 (2008)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해독(1)-12와 14 위치의 동형성 및 51과 55 위치의 대칭성에 대하여」, 『구결연구』 20: 259-286.
- 안대현 (2008)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해독(2)-12와 14 위치 및 51과 55 위치 이외의 점토들에 대하여-」, 『국어학』 51: 195-227.
- 안병희 (1976) 「구결과 한문 혼독에 대하여」, 『진단학보』 41: 143-162.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 연구』 1: 229-248.
- 유명우 (2002)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試論)」, 『번역학 연구』 3(1): 9-38.
- 유명우 (2004) 「한국 번역사에서 본 조선조 언해(諺解) 번역」, 『번역학 연구』 5(2): 69-91.
- 윤행순 (2003) 「한문독법에 쓰여진 한국의 각필부호구결과 일본의 오코토점의 비교-『유가사지론』의 점토구결과 문자구결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0: 79-114.
- 윤행순 (2004) 「한국의 각필부호구결과 일본의 혼점에 나타나는 화엄경의 부독자(不讀字) 용법」, 『구결연구』 13: 39-64.
- 이승재 (2000) 「새로 발견된 각필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135-152.
- 이승재 (2001) 「부호자의 문자론적 의의」, 『국어학』 38: 89-116.
- 이승재 (2004) 「각필 부점구결의 의의와 연구 방법」, 『구결연구』 13: 289-316.
- 이승재 외 (2005-2009)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 ~ 5』, 태학사.
- 이전경 (2005) 「각필 자료 『유가사지론』 권5. 권8의 점토에 대하여」,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67-110, 태학사.
- 장경준 (2001) 「석독구결의 ‘故’자의 현토 경향에 대한 고찰(1) -자토석독구결 자료 5종을 대상으로-」, 『구결연구』 7: 113-134.
- 장경준 (2003)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지시선’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189-209.
- 장경준 (2007)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태학사.

- 장경준 (2008) 「점토구결 연구의 성과와 당면 과제」, 『구결연구』 21: 67-98.
- 장경준 (2008) 「高麗初期 點吐口訣의 諸符號」, 『한국어학』 40: 307-339.
- 장경준 (2010) 「고려시대 불경 번역의 두 가지 양식」, 『한국어문학 속의 번역』 (민족어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5-13.
- 장윤희 (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口訣研究』 12: 47-80.
- 정재영 (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113-193.
- 정재영 (2006) 「한국의 구결」, 『구결연구』 17: 129-189.
- 정재영 외 (2003) 『한국 각필 부호구결 자료와 일본 훈점 자료 연구 - 화엄경 자료를 중심으로』, 태학사.
- 조진기 (2003) 「번역과 국어국문학 연구」, 『배달말』 33: 5-24.
- 황선엽 외 (2009). 『釋讀구결사전』, 박문사.
-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 (2002) 「한국에서 각필구결의 발견과 그 의의(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 『조선학보』 182: 1-82.
- 고바야시 요시노리 (2002) 「한국의 각필점과 일본의 고훈점의 관계」, 『구결연구』 8: 21-76.
- 고바야시 요시노리 (2004) 『각필문헌연구도론(상권 동아시아편)』, 동경: 급고서원(汲古書院).
- 고바야시 요시노리 (2006) 「일본 훈점의 일원류(一源流)」, 『구결연구』 17: 5-40.
- 고바야시 요시노리 (2010) 「일본의 오코토점의 기원과 고대 한국어의 점토와의 관계」, 『구결연구』 25: 21-45.

[Abstract]

**Experimental view on the significance of  
Seokdokkugyol in the history of translation in Korea**

Chang, Kyong Jun  
(Korea University)

Seokdokkugyol is a kind of orthographic system enabling Korean readers to understand the original Chinese text by adding postpositional letters to the original text. The reader who understand the orthographic system of Seokdokkugyol can read the Chinese text with this in Korean. In the point of view of translation, Seokdokkugyol is understood as a kind of translation mode converting Chinese text into Korean text.

Studies on Seokdokkugyol have been pursued actively since the mid 1990's when the text materials have been found massively but the outcome of the studies has not yet been known enough to the academia of Korean linguistics. In the history of translation in Korea, Seokdokkugyol should be a subject of study, but researchers in this field have not yet done extensive research on this topic.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general explanation on Seokdokkugyol, and critically review the understanding of Seokdokkugyol recognized in previous studies.

▶ Key Words: Seokdokkugyol, Chinese-Korean orthographic system, the history of translation in Korea

장경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verdulo@korea.ac.kr 또는 verdulo@hanafos.com

관심분야: 한국어사, 차차표기, 석독구결의 해독

논문투고일: 2011년 10월 26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5일